Asan Report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 사이

여론연구프로그램 | 2014년 7월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은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은 공공외교와 유관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론연구프로그램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 소통이 갖는 의미가 강조되면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책입안자는 국내 여론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합니다. 또한,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연구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 여론연구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여론조사와 고급 통계분석 등을 통해 국내 여론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여론수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에 도움을 준 이현선, 추정연 인턴에게 감사 드립니다.

저자

김 지 윤

김지윤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계량분석센터장 및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거와 재정정책, 미국정치, 계량정치방법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와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조사연구, 2011),『국회의원 선거결과와 분배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2010),『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Electoral Studies*, 2010),『Public Spending, Public Deficits, and Government Coalitions』(*Political Studies*, 2010),『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등이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MIT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강 충 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정책소통지수 개발" 연구에 참여했고, 연구 관심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이 의 철

이의철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아산 데일리 폴'과 '아산 연례조사' 등 여론조사 실무와 분석을 맡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는 여론조사, 국내정치, 선거연구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프로그램 연구원이다. 위튼버그 대학교(Wittenberg University)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세계경제연구원(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에서 연구원을 거쳤고, 코리아헤럴드와 중앙일보 등의 매체에 기사를 기고하고 있다.

목차

요약 09

들어가며 12

1.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 13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인식 13
   - 중국 및 시진핑 주석 호감도 14
   - 한중관계 평가: 경쟁 대(對) 협력상대 15

2.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17
   -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17
   -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인의 인식 18
   - 중국의 신뢰 제고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 20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위협 21
   -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26

3. 문화협력과 한중관계 30
   - 한중협력과 소프트파워 30
   - 문화 영향력 평가와 위협 인식 33
   - 한중정상회담 35

나가며: 한중관계의 미래 36

부록 1: 한중관계 주요 이슈 38

부록 2: 조사개요 41

그림

〈그림 1〉 한중관계 평가 13
〈그림 2〉 주변국 호감도 14
〈그림 3〉 국가수장 호감도 15
〈그림 4〉 한중관계 평가: 경쟁·협력상대 16
〈그림 5〉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인식 17
〈그림 6〉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이유 18
〈그림 7〉 중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 평가: 북한을 돕기 위한 개입 19
〈그림 8〉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 평가 20
〈그림 9〉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 21
〈그림 10〉 시기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 22
〈그림 11〉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본 이유 23
〈그림 12〉 한중 FTA에 대한 의견 27
〈그림 13〉 한중 FTA 이익 국가 28
〈그림 14〉 중국산 제품·식품에 대한 견해 29
〈그림 15〉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견 31
〈그림 16〉 중국의 이미지 32
〈그림 17〉 중국인과 한국인 가치관 공유 33
〈그림 18〉 한중정상회담 의제 35

표

〈표 1〉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인식에 따른 중국의 부상 평가 34
〈표 2〉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인식에 따른 중국의 아시아 리더역할 평가 34

요약

시진핑 중국 주석이 7월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인은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호감도는 많이 개선돼 올 들어 10점 만점에 4점대 후반으로 올랐다.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협력상대로 봤고, 앞으로도 양국간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중국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덜 느끼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의 호감도도 동반 상승했다. '국가수장 호감도'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바짝 뒤쫓는 2위를 1년 동안 유지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상대'란 인식도 2013년 1월 49.8%에서 올 6월 60.8%로 올랐다. 두 나라의 전면적 협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사정은 복잡하다. 중국에 대한 불신까지 불식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반의 한국인이 중국의 군사·경제적 부상을 위협으로 보고 있었고, 중국의 친한(親韓) 행보를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한국인의 66.4%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중국이 주변국과 벌이는 영토 분쟁, 군비증강 움직임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71.9%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한국 기업 못지 않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봤다. 요컨대 한국인은 중국을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모처럼 한중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깊지 않았다.

그 핵심에 북한과 북핵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중 관계와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이 여전히 북한 편이라고 봤다. 대중(對中) 인식이 많이 호전됐지만,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것으로 본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또 중국이 통일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본 비율도 낮았다. 상당수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도 중국이 기대만큼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북한 문제가 개입되면 대다수 한국인이 중국이 아닌 미국을 더 신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한국

인의 태도가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국인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국인의 53.6%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82.4%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과 북핵에 대한 중국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정상회담에서 꼭 필요한 이유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한 발 빼는 모양을 보인다면 한국인은 "한미동맹이 역시 가장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도 한국인의 40%는 북핵 문제 해결에 미국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봤다. 중국이 안보 문제에서 한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북핵 불용"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전처럼 한반도 비핵화, 남북통일 지지와 같은 정치적 수사만 반복되면 협력 분위기로 흐르는 한중관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들고 오는 해법이 6자회담 재개뿐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의 면모를 보이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정상이 경제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한중 FTA 체결에 조속히 합의한다"는 선언으로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려워하는 한국인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두 나라 사이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쟁보다 상생하는 한중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FTA의 빠른 체결에 집중해 환경부문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식품, 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고조돼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식품의 신뢰성 문제와, 중국발 환경오염도 한국인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문제에서 주변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식품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 협상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최근 중국은 소프트파워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군사 부문을 넘어 문화 부문에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한국인의 중국 이미지는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국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다. 반면에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리는 한국인은 소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문화 자산을 주변국에 널리 알리는 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중 양국은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늘려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화협력이 오히려 두 분야 협력의 출발점일 수 있다. 중국 문화의 확장에 긍정적인 한국인일수록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성장에 대해 위협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런 한국인일수록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이었다. 한국인이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에 거부감이 덜 하다는 점은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증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교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 분야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류(韓流)가 중국에서 사회 현상이 된 지금, 양국 정부는 문화차원 협력을 늘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문화교류를 통해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따라서 한중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한중 FTA와 더불어,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 사이

들어가며

2014년 동북아 정세는 복잡다단하다. 미국과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한국은 제각각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순항 중이다. 한중 양국은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지역안정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에 국빈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의를 다졌으며, 최고위급 전략소통 기제를 마련해 외교·안보 협력채널을 구축했다.[1] 외부의 안보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양국 관계를 증진하려는 두 정상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인다.

한중관계가 호전된 만큼,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도 개선됐다. 최근 들어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이 늘었다. 중국과 안보협력까지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면서다. 그럼에도, 한중 양국이 협력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한미동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이 안보협력을 맺을 정도의 신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한중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한국인의 한중관계 인식에서 나타난 주요한 변화는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짧은 기간 동안 개선됐다는 점이다. 중국에 대한 인식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고, 한중관계를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최근 한중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인의 인식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

1.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간 대화 채널을 신설한 것으로 이 수준의 대화채널은 미국, 러시아와만 갖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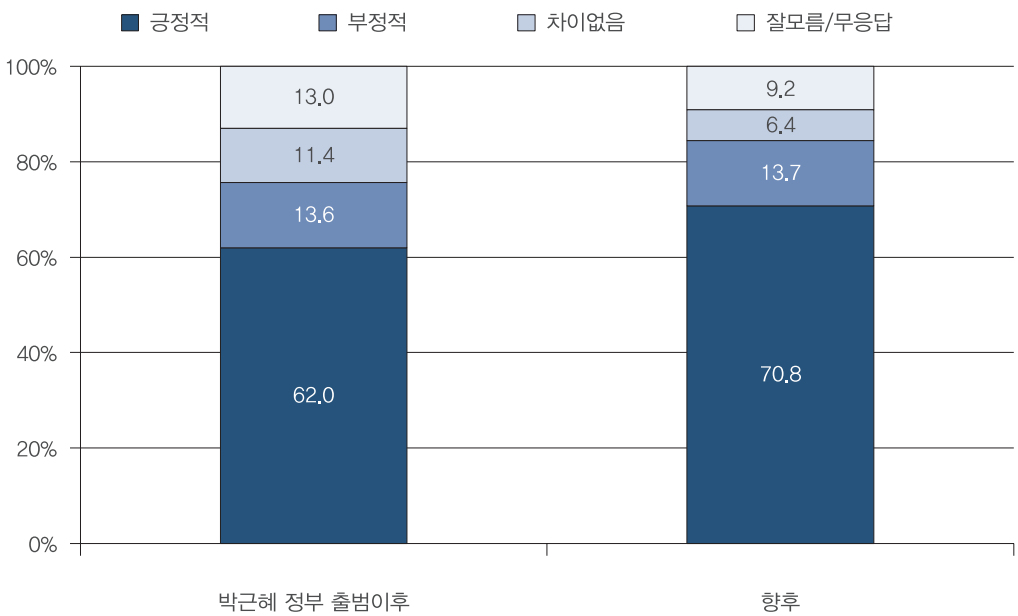
그러나 한중관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한국인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중국을 경제위협으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협력이 용이한 문화부문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이 소프트파워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향후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한중협력 강화는 양국간 신뢰구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1.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인식

많은 한국인은 최근 중국과 관계가 개선됐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와 향후 한중관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응답자의 62%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 관

그림 1. 한중관계 평가 (단위: %)



계가 더 좋아졌다"고 했고, 70.8%는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통일과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킨 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을 통해 한국의 역사인식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한중 FTA를 연중 타결하기로 한 것,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인계식을 통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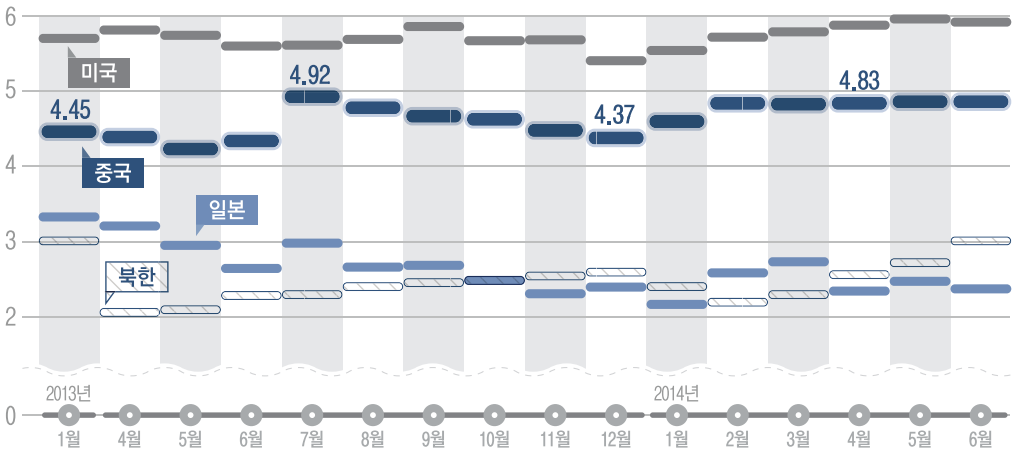
중국 및 시진핑 주석 호감도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도 상승했다. 10점 만점에 2011년 3.93점, 2012년 3.94점이었다가 지난해 1월 4.45점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의 호감도가 평균 5점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 호감도는 이슈에 따라 출렁거렸다.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상승해 5점(보통)에 근접했지만 11월 중국이 돌연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면서 2013년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 올해 2월부터는 4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중국 호감도가 등락을 보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은 줄곧 떨어진 일본·북한 호감도와 대조된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북한은 무력도발로 긴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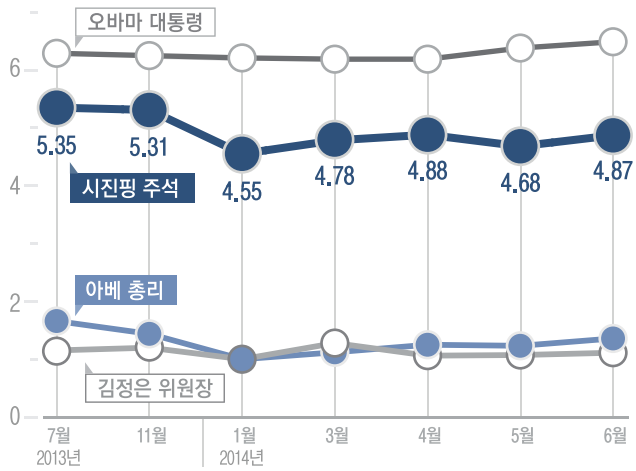
그림 2. 주변국 호감도 (단위: 11점 척도, 0~10점)



조성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담 이후 세 차례 더 만나 한반도 주요 이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올해 5월부터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본격 추진되며 한중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중국 호감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 역시 중국 호감도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이후 시 주석은 한국인에게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외국 정상이었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호감도가 소폭 떨어졌다가 최근 4점대 후반을 회복했다.[2]

그림 3. 국가수장 호감도 (단위: 11점 척도, 0~10점)



한중관계 평가: 경쟁 대(對) 협력상대

한중관계를 협력관계로 보는 한국인도 늘었다. 2013년 초 중국을 경쟁 상대로 본 한국인과 협력상대로 본 한국인의 비율은 대략 반반 정도였다. 그러나 2013년 한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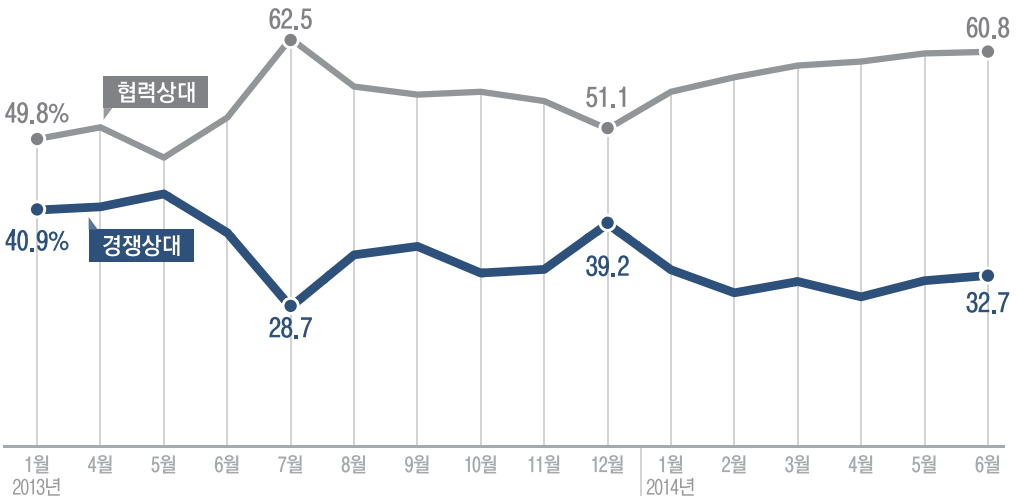
2. 앞서 살펴본 국가 호감도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시진핑 주석 호감도의 반등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지난해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 측정된 시진핑 주석 호감도가 5.35점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중국 호감도를 고려해 볼 때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회담 직후 '협력 상대'라는 인식이 급격히 늘어 7월엔 62.5%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 역시 호감도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 경쟁상대란 한국인의 인식이 한때 늘었다. 2013년 12월 조사에서 중국을 협력 상대로 본 한국인은 51.1%, 경쟁상대로 본 한국인이 39.2%였다. 그러나 올해 초 시진핑 주석 방한 예정 보도가 나온 뒤 협력상대로 보는 시각은 50% 후반까지 증가했다. 특히, 5월 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등으로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협력 상대란 의견은 약 60%로 늘어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경우, 중국 호감도와 중국을 협력 상대로 보는 시각은 향후 더 높아질 것이다.[3]

그림 4. 한중관계 평가: 경쟁·협력상대 (단위: %)



3. 여전히 70~80%의 한국인이 미국을 협력상대로 보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에 대한 인식이 짧은 기간 동안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분명하다.

2.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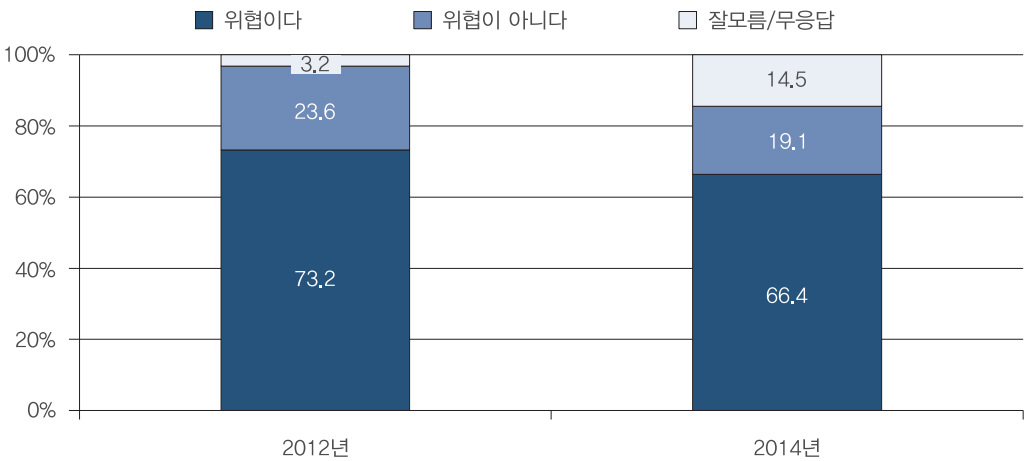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양국 협력이 본격화 된 것도 아니며, 현재의 긍정적 분위기가 공고한 상호신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 동북아에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일본 대(對) 중국·러시아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중국은 꾸준히 국방비를 늘리고 지역 내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미·일의 우려와 달리,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위협으로 보는 한국인은 전보다 줄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2년보다 약 10% 감소했고, 판단을 유보한 비율(잘모름/무응답: 14.5%)은 늘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

그림 5.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인식[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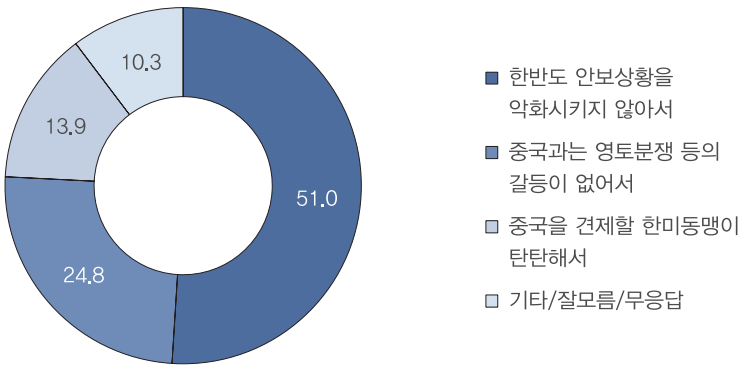


4. 아산-GMF 공동 국제관계 여론조사(조사기간: 2014년 6월 15~21일),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한 주변국의 반응을 감안하면 흥미로운 결과다.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북한 거리두기 등으로 한국인의 대중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51%는 "한반도 안보를 악화시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중 간엔 영토분쟁 같은 갈등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이 24.8%,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13.9%로 나타났다.

그림 6.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이유[5] (단위: %)



반대로 위협으로 본 응답자의 40.9%는 "중국이 영토분쟁 등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중 대결구도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라는 응답(21.5%)과 "군비경쟁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20.5%)은 비슷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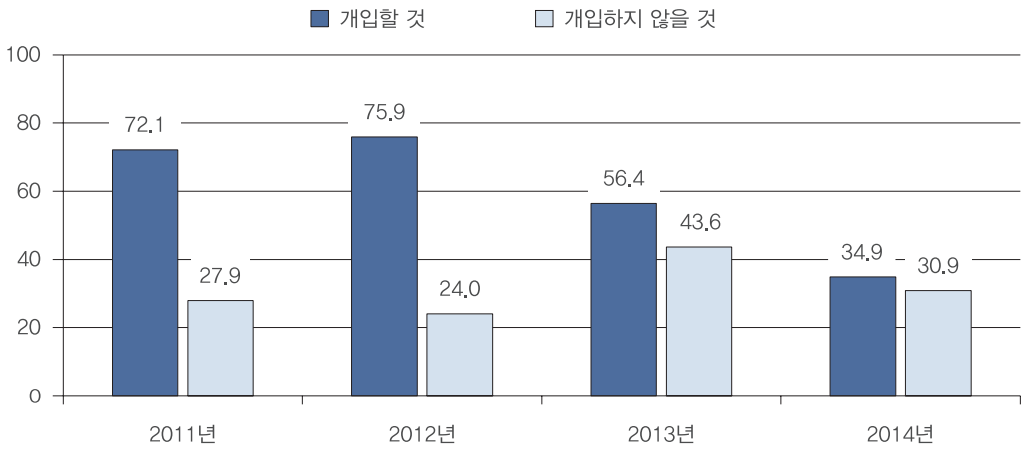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인의 인식

비록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66.4%의 한국인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인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결국 북한 문제와 연관돼 있다. 2012년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2010년 북한의 두 차례 무력 도발에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5.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로 기울고 있다. 2010년까지 중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을 두둔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5·24 경제제재 조치에도 협력하지 않았다. 중국의 편파적 태도에 불만을 가진 많은 한국인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중국은 북한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여겼고, 이런 경향은 2012년(개입할 것: 75.9%)까지 계속됐다([그림 7] 참조).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뒤 한중관계가 개선되자 그런 의견은 56.4%로 감소했다. 짧은 기간 사이 20% 이상의 한국인이 중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에 대한 평가를 바꿨다.

그림 7. 중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 평가: 북한을 돕기 위한 개입[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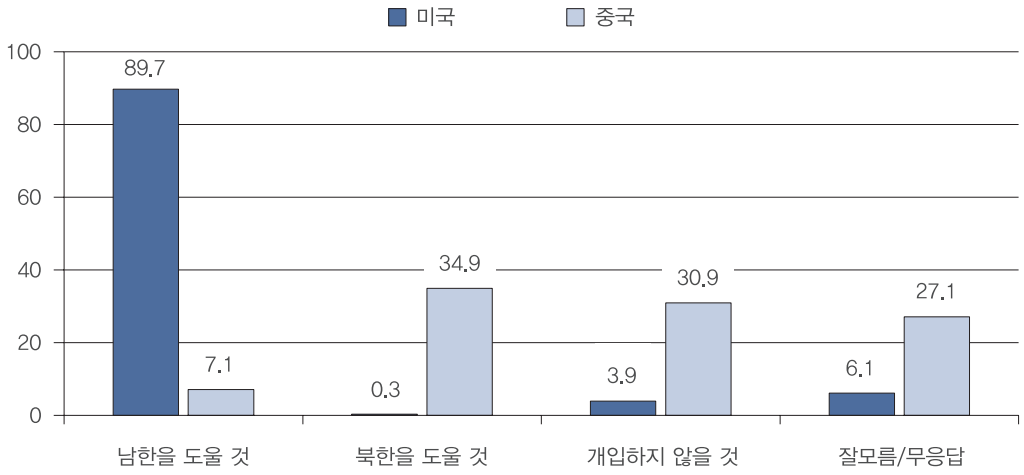


올해 5월에는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면 누굴 도울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북한을 도울 것" 34.9%, "개입하지 않을 것" 30.9%, "잘 모르겠다/무응답" 27.1%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북한 편만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2012년 75.9%에서 2년 사이에 4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이 우릴 도울 것이란 답은 7.1%였다. 반면, "전쟁이 나면 미국이 우릴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89.7%였다. 한미관계가 반미감정, 동맹갈등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미국을 굳건한 동맹국으로 본다는 의미다.

---

6. 아산연례조사(2011년, 2012년, 2013년),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4~6일).
[그림 7]의 2014년 수치는 [그림 8]과 동일한 조사결과로 시기별 비교를 위해 [그림 7]에 함께 제시했다.

그림 8. 주변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 평가[7] (단위: %)



안보현안에 있어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은 통일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의 68.1%는 '중국이 남북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봤다. 중국이 북한을 완충지대로 본다는 인식이 한국인 사이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양국 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의 신뢰 제고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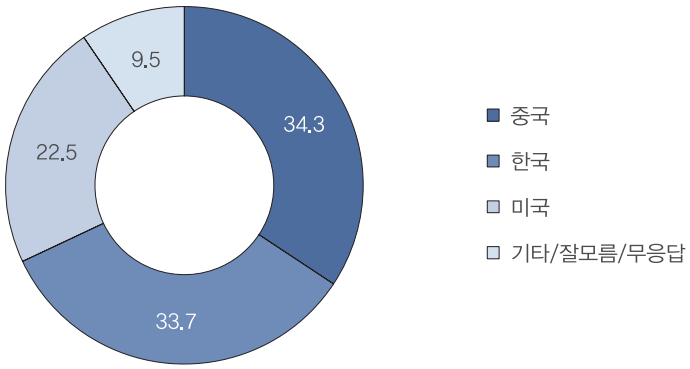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거나 중국이 북한편만 들 것으로 보는 한국인은 줄었다. 그럼에도, 양국간 협력 강화의 길목엔 북핵 문제 해결이란 난제가 놓여 있다. 바뀐 한국인의 대중(對中) 인식을 업고, 한중 양국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에 힘써야 한다. 실제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이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중정상이 다뤄야 할 현안은"이란 질문에 53.6%가 북핵 문제를 꼽았다.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나라로 34.3%가 중국을 지목했다. 이는 한국(33.7%)과 비슷했고, 미국(22.5%)보다는 높았다.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국가로도 중국

7.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4~6일).

(33.6%)은 미국(40%) 다음으로 꼽혔다.

그림 9. 북핵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국가 (단위: %)



통일과 관련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0% 가까이 나왔지만 82.4%의 응답자는 "한반도 통일에 중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87.3%)과 비슷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조된 한중협력 분위기를 잘 이어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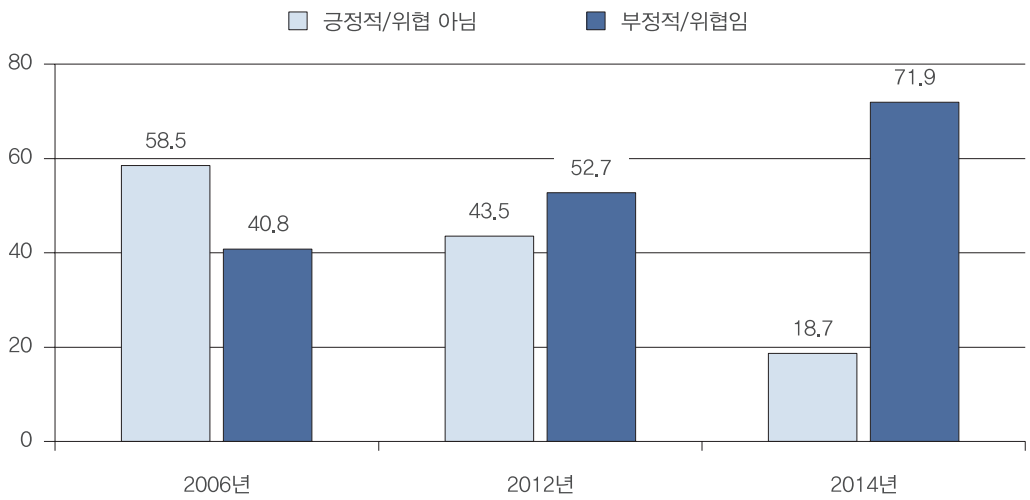
중국의 군사력 부상으로 인한 위협 인식은 소폭 줄었지만, 2014년 현재 경제적 부상을 위협으로 여기는 한국인은 늘었다. 대 중국 투자가 활발했던 2000년대 초 한국인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은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2006년 여론조사에서 58.5%의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력 강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답변은 40.8%였다.[8]

8. EAI·중앙일보·CCGA 대외인식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동아시아연구원), 조사기간: 2006년 6월 19일~7월 7일. 문항: "귀하께서는 다음에 읽어드릴 몇 가지 가능한 미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현재보다 경제적으로 매우 강해지는 상황" 답변: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체로 부정적이다".

2012년 여론조사에서는 태도가 바뀌었다. 응답자의 52.7%가 "중국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답했다. 43.5%가 "중국의 발전이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했다. 긍정과 부정이 자리를 바꾼 것이다.[9]

같은 경향이 최근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2014년 들어 중국을 경제적 위협으로 본 비율이 71.9%로 크게 늘었다. 아니라고 답한 응답은 18.7%에 그쳤다. 한국인은 2014년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0]

그림 10. 시기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인식[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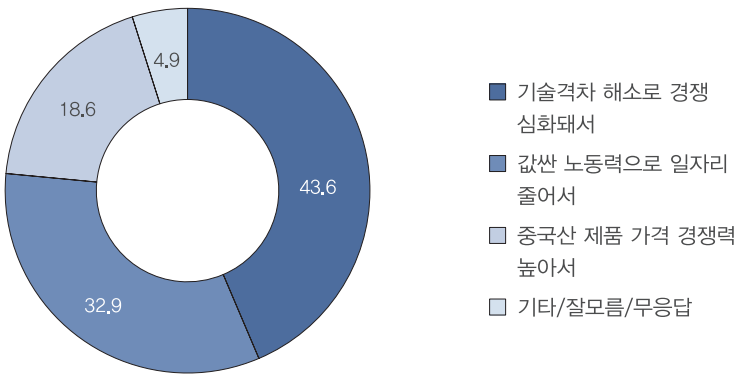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앞선 조사에서 "위협"이라고 답

9.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아산정책연구원), 조사기간: 2012년 6월 15일~22일 문항: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새로운 시장과 투자 기회를 가져온다는 의견과 우리 경제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답변: "경제적 기회의 측면이 더 크다", "경제적 위협의 측면이 더 크다".
10.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일~9일). 문항: "선생님께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긍정(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 부정(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한 719명에게 물었다. 가장 많은 43.6%가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줄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32.9%는 "중국의 싼 노동력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서"라고 답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라고 답한 비율은 18.6%였다.[12]

그림 11.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본 이유[13] (단위: %)



(1) 기술격차와 한중 경쟁 심화

한중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은 객관적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양국의 과학·기술 인프라 순위 격차는 지난 10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연간 연구개발(R&D)투자는 2010년 이미 한국의 약 3배가 됐다. 특허출원 건수와 과학논문편수에서도 한국에 각각 2배, 4배 앞선다.[14]

---

11. 함께 비교한 세 문항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긍정적/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다는 점에 비교에 의의가 있다.
12. 중국의 경제성장이 위협이 아니라고 답한 187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가장 많은 36%는 한중의 기술격차가 여전히 커서라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양국 주력 교역부문이 달라서가 24.8%, 중국 노동력의 국내 진출이 미미해서가 11.1%였다.
13.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일~9일)
14. 한재진(2013),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한중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한국경제주평, 524권.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현실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양국의 주요 산업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 한중 10대 수출 주력품목을 비교하자 겹치는 품목이 2000년 4개에서 2013년 6개로 늘었다. 휴대전화, 반도체, 정밀기계, 화물선, 석유제품, 휴대전화부품으로 한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 화학, 조선 업종에 해당한다. 한국 기업의 해당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도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15] 세계 무대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분야를 중국이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16] 한국인의 우려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한중 경쟁이 본격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3년 들어 양국 경제협력은 오히려 강화됐고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었다. 일반적 우려와 달리,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활성화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2013년 두 나라의 상호 수출입 실적은 늘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2012년 1,343억 달러에서 2013년 1,458억 달러로 115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012년 807억 달러에서 2013년 830억 달러로 23억 달러 늘었다. 중일 갈등이 심해지며 일본의 대 중국 수출이 줄고, 우리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3년 대중국 수출 1위 국가다.[17]

(2) 중국 노동력과 국내 일자리 문제

2000년대 초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저임금 중국 노동자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생겼다. 그러나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는 중국 저임금 노동력이 국내 노동력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의 임금수준은 20세기 초처럼 낮지 않다.

중국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은 가파르다. 지난 5년간 중국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은 2배

15. 동아일보(2014). "중국 '質量 공습' … 한국 100대 수출품목 30개 거센 경쟁", 2014년 3월 20일자.
16. 『차이나콤플렉스』(아산정책연구원 2013)에서는 한중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이유를 1. 중국기업이 한국인 기술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한중 고용구조가 변해서, 2. 중국 기업이 한국의 산업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서, 3.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라고 설명한다.
17.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14년 6월 10일 방문.

가량 상승했다. 2014년 현재 가장 많은 한국 법인(7,791개)이 진출해 있는 산둥성의 월 최저임금은 2009년 760위안(14만2006원)에서 2014년 1,500위안(26만7150원)으로 2배 올랐다. 베이징 최저임금도 2009년 800위안(14만9480원)에서 2014년 1,560위안(27만7836원)으로 두 배 뛰었다. 중국 중서부 시장 진출의 핵심 도시인 충칭의 경우 2013년 한 해에만 최저임금이 19% 상승했다.[18] 중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이 실제 임금 상승률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임금 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저임금을 노리고 중국에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19]

해외 기업의 중국 진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2011년 이후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혜택은 줄었다. 2012년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를 폐지했고, 2010년 12월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도시유지보수건설세와 교육세를 부과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도 폐지되거나 축소 돼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여건은 여러모로 악화된 상태다.[20]

마지막으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투자도 노동지향적에서 투자지향적으로 바뀌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과거와 달리 중국인을 고용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본다. 최근 2~3년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대기업의 중국 투자는 확대되고, 중국인 고용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대 중국 투자는 감소했다.[21]

요컨대 한국인은 중국의 군사력보다 경제성장을 더 두려워한다. 이유는 첫째,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아 우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

18. 출처: 한국무협협회 보도자료(북경지부). 2014년 3월 10일자. 최저임금 원화 환산을 위한 기준환율은 각각 2009년 연평균환율과 2013년 연평균환율로 했다.
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중국 전문가포럼 국외기사 자료." 『经济日报』 보도기사에서 재인용. 2014년 3월 30일자. 현 중국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 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면 중국 정부가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반영돼 있다며, 중국 내 임금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20. 한국수출입은행(2013). "2013년 중국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1.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자료. 2014년 6월 10일 방문.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한중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아직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더 깊어질 것이 분명하다.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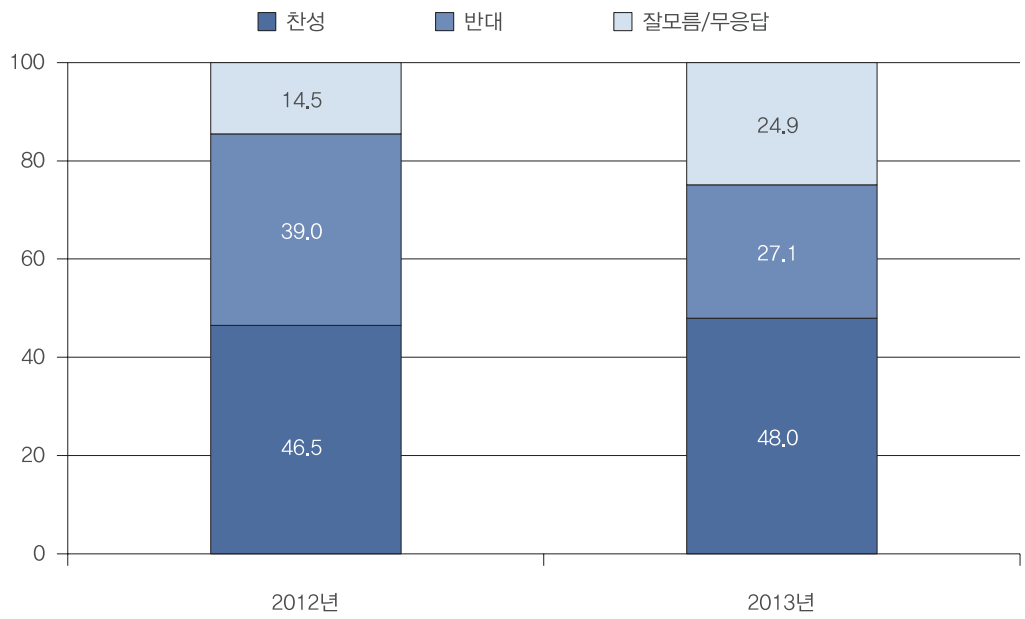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것이 한중 경제협력의 핵심인 FTA 체결을 막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FTA 논의는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가속도를 내고 있다. FTA 협상은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국인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위협을 느낀 것과 달리, 한중 FTA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2012년 5월 한미 FTA 발효 직후, 한미 FTA와 한중 FTA 각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미 FTA엔 53.1%가 찬성, 39.4%가 반대했다. 한중 FTA는 46.5%가 찬성, 39.0%가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FTA의 찬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당시 한미 FTA는 이미 발효됐지만 한중 FTA는 협상이 막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한중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인식은 2013년 한층 더 나아졌다. 앞선 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중 FTA에 대한 찬반과 FTA 체결시 이익을 보는 나라를 물었다. 한중 FTA에 대한 찬성은 48.0%, 반대는 27.1%로 나왔다. 2012년보다 반대가 줄고 의견 유보는 증가했다.

또 2012년 당시 우리 국민은 한미 FTA 보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더 이익이 될 것으로 봤다. “한미 FTA로 어느 국가가 이익을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47.6%, “한국”은 5.8%였다. “양국 모두 이익”은 36.5%였다. 반면, “한중 FTA로 중국이 이익을 볼 것”이란 답은 36.9%였고, “한국 이익”은 12.1%였다. “양국 모두 이익”은 31.2%였다. 한미 FTA에 비해 한중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낮았다.

그림 12. 한중 FTA에 대한 의견[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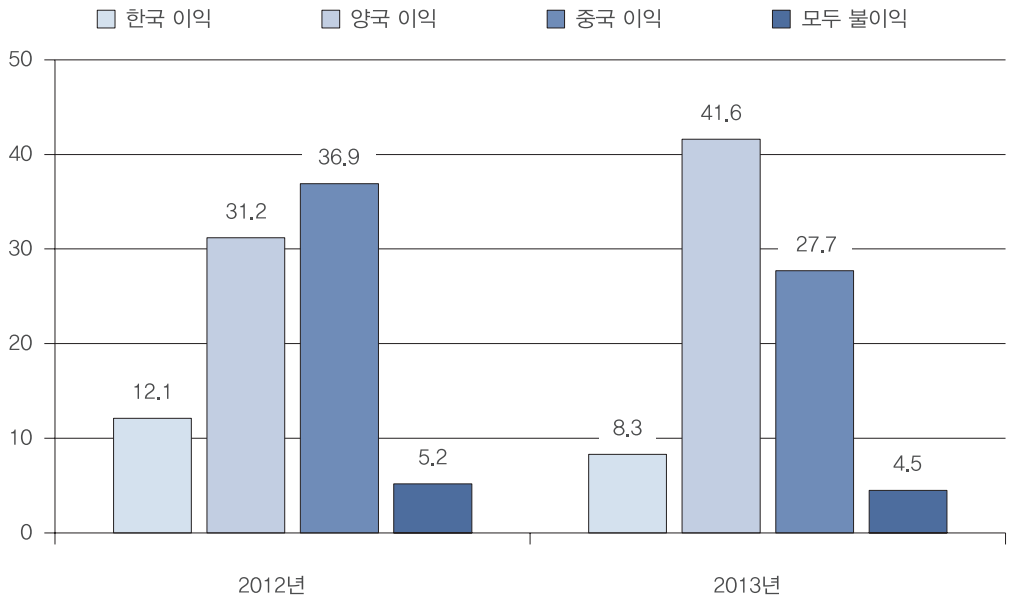
한중 FTA 논의가 본격화된 2013년에는 호의적 인식이 늘었다. "두 나라 모두 이익"이라는 비율이 2012년 31.2%에서 2013년 41.6%로 10.4%포인트 늘었다. 중국이 이익일 것이란 비율은 2012년 36.9%에서 2013년 27.7%로 줄었다. FTA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인의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양국 모두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는 두 나라의 중요한 외교사안이기도 하다. 2013년 "한중관계의 중요 사안은"이란 질문에 북핵 해결 37.2%, 통일 20.6%, FTA 등 경제문제 20.1%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이 미국·중국 모두와 북한 문제, 경제 문제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야 할 사안으로 북핵 문제(26.5%)를 첫째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 등 경제 협력 강화(19.8%), 통일

22. 아산월례조사(조사기간: 2012년 5월 15일~16일),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3년 4월 29일~5월 1일)

협력(16.7%)이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지만 한국인은 안보위협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 한중 FTA 이익 국가[23] (단위: %)



한중 FTA에 대해 한국인이 호의적인 만큼 협상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 식품의 안정성 문제, 중국의 환경오염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식품안전과 환경협력을 중점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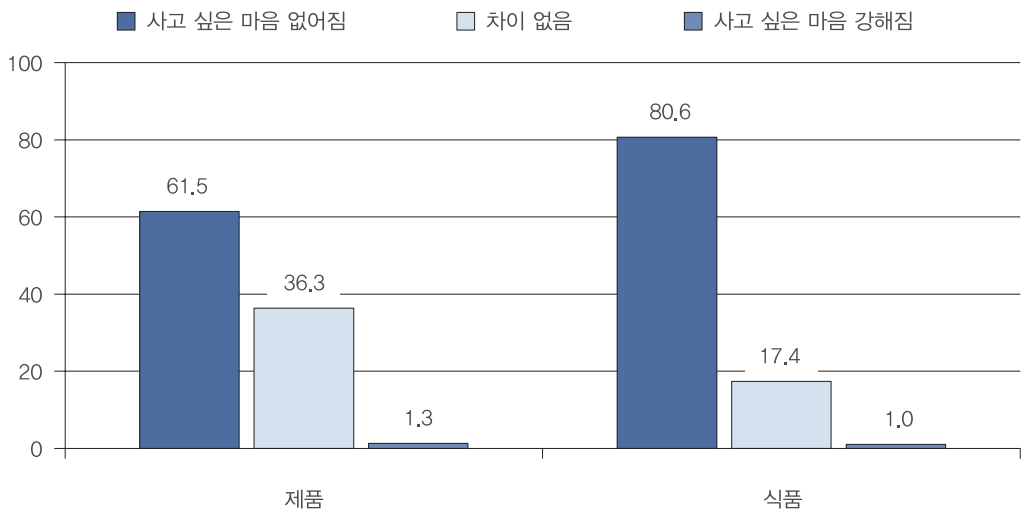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산 식품을 불신했다. "구매하려는 제품이 중국산임을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자 응답자의 61.5%는 "살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다. "차이가 없다"는 답은 36.3%였다.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는 반응은 1.3%에 불과

23. 아산월례조사(조사기간: 2012년 5월 15~16일),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3년 4월 29일~5월 1일)

했다.[24]

식품의 경우 부정적 반응은 더 했다. "구매하려는 식품이 중국산인 걸 알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묻자 80.6%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고 했다. "차이가 없다"는 답은 17.4%였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은 나이·이념성향·학력과도 관계 없었다.

그림 14. 중국산 제품·식품에 대한 견해[25] (단위: %)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측은 자국 식품을 일반 품목군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민감 품목으로 정했다. 양측의 셈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FTA 협상 과정에서 중국 식품에 대한 검증이 더욱 철저 해야함을 보여준다. FTA를 서두르다 적절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체결 이후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이 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 식품 위생·안전을 위해 정부는 물러서지 말아

24. 세대별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어릴 때부터 중국산 제품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노년층에 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덜했다. 20대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라는 사실이 구매 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5%로 과반을 넘었다.
25.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야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중요한 FTA 안건은 환경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문제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이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미했다. 중국은 2014년 당 대회에서 자연보호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국제적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다.

여론조사는 중국발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 "중국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란 답이 95.2%였다. 또 "한중 관계 발전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0.5%가 환경오염을 꼽았다. 이런 실태는 양국이 환경 문제의 협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FTA와 같은 경제 문제도 풀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양국은 11차 협상에서 중국의 환경보호와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했지만 환경부분의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걱정을 고려해 이 분야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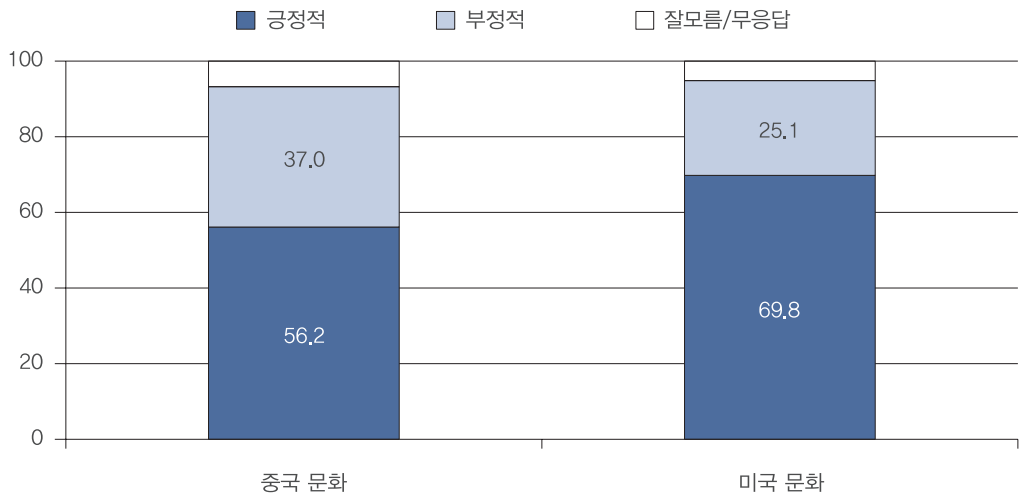
3. 문화협력과 한중관계

한중협력과 소프트파워

소프트파워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다. 최근에는 소프트파워 경쟁력이 높아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 돼 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살펴봤다. 한국인의 69.8%는 미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에 긍정적이었으나, 중국 문화 영향력 확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56.2%만이 긍정적으로 봤다.

미국의 문화 영향력 확대에 한국인이 긍정적(69.8%)이란 점은 놀랍지 않다. 전후 60년 동안 미국 문화는 우리 사회에 깊이 들어왔고,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도 대체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교 수립 20년을 넘기며 최근 관계가 좋아진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을 긍정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56.2%)이 미국에 미치지 못한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림 15. 문화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견[2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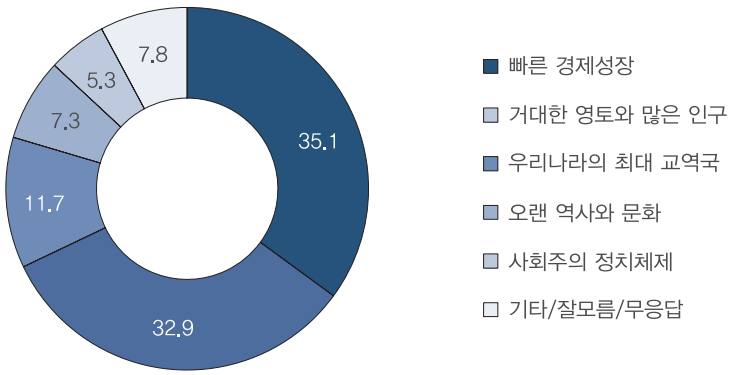
그렇다면, 중국의 소프트파워 강화 전략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까? 중국은 지난해 6월 미중 양국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며, 정치·외교분야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신경 쓰고 있다. '능력국가'에서 '매력국가'가 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27] 최근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부각시키고, 중국어와 중국문화 보급을 위해 해외에 공자학당을 설립하는 것도 문화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중국의 소프트파워 외교가 아직 큰 효과를 발휘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미지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는 한국인은 극히 일부였다.

중국을 보는 대다수 한국인의 이미지는 경제성장과 대국이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란 질문에 '빠른 경제성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가 32.9%였다. 반면, '한국의 최대 교역국'란 답은 11.7%에 그쳤다.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온 중국을 떠올리는 한국인은 많았지만, 이를 우리나라 경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비율은 그보다 적었다.

---

26.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27. 세계일보(2014). "경제·군사력 키운 중국 '이젠 소프트파워다'", 2014년 2월 17일자.

그림 16. 중국의 이미지[2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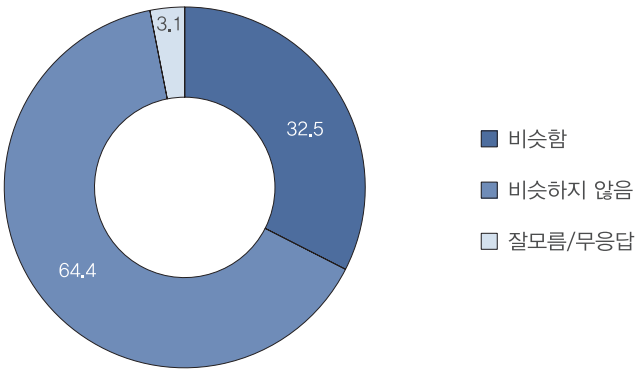


또 긴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중국 했을 때 '오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린 한국인은 7.3%로 매우 적었다. 즉 중화(中華)와 높은 문화 경쟁력을 연관 지은 한국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소프트파워 부상을 계획하는 중국 입장에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린 한국인이 적었다는 것은 우려할 점이다.

"중국인과 한국인이 가치관을 얼마나 공유하는가"란 질문에도 32.5%만 '공유한다'고 답했다. 64.4%는 '다르다'고 여겼다.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응답은 24.2%로 중국보다 낮았다. 그러나 유교 문화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오래 교류해 온 두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여기는 한국인이 다수였다는 점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확장 발걸음이 더딤을 시사한다.[29]

28.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29. 유사한 질문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서는, 24.2%의 응답자가 미국인과 한국인의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비슷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72.9%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문화가 향후 한국인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7. 중국인과 한국인 가치관 공유[30] (단위: %)



문화 영향력 평가와 위협 인식

국제관계에서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간 가치관, 정책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매력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군사·경제력 못지 않다. 때문에 소프트파워는 일반 대중의 국가에 대한 호감을 높이기도 한다.[31] 실제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한국인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성장에 의해 느끼는 위협을 다르게 평가했다.

한국인은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에 부정적일수록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봤다. 중국 문화의 확장에 부정적이었던 응답자 중 84.1%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위협으로 봤다. 또 이들 중 87.6%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협이라고 답했다. 반면, 중국 문화의 확장에 긍정적이었던 응답자는 27.2%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 위협이 아니라고 봤고, 이들 중 26%는 중국의 경제성장도 위협이 아니라고 응답했다.[32] 결국, 중국의 문화 수준을 인정하는 한국인이 중국에 위협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

30.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31. Nye, Joseph S. (2006). "Think again: Soft Power," *Foreign Policy* (February 2006).
32. 물론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을 긍정적으로 본 한국인 사이에서도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성장을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70% 이상이었다.

중 양국이 문화협력을 통해 서로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표 1.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인식에 따른 중국의 부상 평가[33] (단위: %)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긍정적	부정적
군사적 팽창	위협	72.8	**84.1**
	위협 아님	**27.2**	15.9
경제성장	위협	74.0	**87.6**
	위협 아님	**26.0**	12.4

향후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리더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55.4%의 한국인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 반응은 35.9%였다.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표 2.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인식에 따른 중국의 아시아 리더역할 평가[34] (단위: %)

		중국 문화의 영향력 확장	
		긍정적	부정적
중국의 아시아 리더역할	긍정적 (35.9%)	**54.7**	17.9
	부정적 (55.4%)	45.3	**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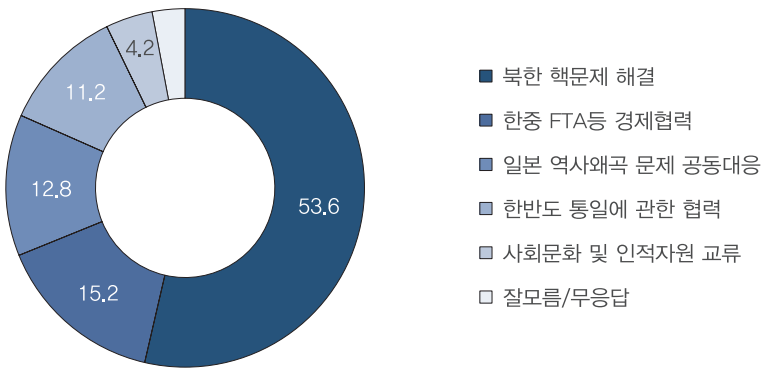
33.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34.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7~9일) [표 1], [표 2]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만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중국 문화 확장에 수용적일수록 중국의 리더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54.7%)했다. 반면, 중국 문화 확장을 부정적으로 본 한국인은 82.1%가 중국의 리더역할을 반대했다. 중국이 패권주의로 흐르지 않고, 지역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소프트파워 강화를 외교정책의 첫 번째 기조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이 기대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다. 53.6%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의 중요의제라고 답했다. 한중 FTA 등의 경제협력은 15.2%였다. 동북아의 중요 현안으로 돼 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공동대응은 12.8%로 세 번째였다.[35]

그림 18. 한중정상회담 의제 (단위: %)



근래 급격하게 냉각된 한일관계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고노 담화 검증 등으로 일본에 대한 정서가 급격히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 점은 북한 위협이 더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본 역사왜곡 문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

35. 아산데일리폴(조사기간: 2014년 5월 4~6일)

과의 공조가 자칫 중국과 함께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나가며: 한중관계의 미래

최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개선됐다. 시진핑 주석의 호감도 역시 동반 상승했다. 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을 협력 상대로 봤으며, 앞으로도 한중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은 중국으로 인한 안보위협도 덜 느끼고 있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외형상 한국인의 중국 호감은 상당했다. 그렇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까지 불식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과반의 한국인이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중국의 친한(親韓) 행보를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다수의 한국인은 여전히 중국이 북한 편에 설 것으로 봤다. 대중(對中) 인식이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한국 편에 설 것으로 본 응답자는 7%에 불과했다. 반면, 한반도 전쟁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은 90%에 가까웠다. 즉 북한 문제가 개입되면 대다수 한국인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골랐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전처럼 한반도 비핵화, 남북통일 지지와 같은 정치적 수사만 반복되면 협력 분위기로 흐르는 한중관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주석이 들고 오는 해법이 6자회담 재개뿐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란 말이 나온다. 중국이 책임대국으로의 면모를 보이고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핵 문제에 밀려 순위는 낮아졌지만, 한중 경제협력도 정상회담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이다.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두 나라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메시지를 대중에 전할 필요가 있다. 다수 한국인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한중 FTA는 기대하고 있다. 두 나라 사이 경제부문 통합을 가속화하며, 경쟁보다 상생하는 한중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FTA의 빠른 체결에 집중해 환경부문과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최근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식품, 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고조돼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식품의 신뢰성 문제와, 중국발 환경오염도 한국인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문제에서 주변국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때문에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식품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 협상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교안보 및 경제분야에서는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문화협력이 오히려 두 분야 협력의 출발점일 수 있다. 중국 문화의 확장에 긍정적인 한국인일수록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경제성장에 대해 위협을 덜 느꼈다. 또한, 이들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중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 분야 협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류(韓流)가 중국에서 사회 현상이 된 지금, 양국 정부는 문화차원 협력을 늘려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문화교류를 통해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서동시집 오케스트라(West-East Divan Orchestra)의 슬로건처럼, "서로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할 수 있다(Knowledge is beginning)"는 격언을 믿어볼 때다.

부록 1

한중관계 주요 이슈

2013년

3월 26일: 제19대 국회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발족

4월 9일: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중앙 당교 대표단이 방한
(한중관계, 북한의 3차 핵실험, 중거리 미사일 발사, 급변사태 대응방안 논의)

6월 4~5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중국군 총참모장, 한중 군사회담 개최
(군사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북한 비핵화 등 안보정세 논의)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중국의 탕자쉬안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접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인정 확인)
6월 27~30일: 박근혜 대통령, 중국 방문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

9월 5일: 한국 국회·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사상 첫 공동 발표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한-중 FTA 논의
9월 25일: 한중영사협정 협상 타결
(15차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협정 문안 합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 여부 등 논의)

11월 18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방한, 박근혜 대통령 접견
한중 외교-안보 고위급 대화 (북핵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논의)
11월 23일: 중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포함
11월 28일: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우리측의 시정 요구 거부

12월 8일: 이어도, 마라도, 홍도를 포함하는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선포

2014년

1월 19일: 중국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

3월 23일: 박대통령,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북핵, 북한 인권 등 양국관계 발전방안 논의)
3월 28일: 6.25전쟁 중국군 유해 437구, 중국으로 송환

4월 11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 베이징에서 한반도 정세 및 6자회담 재개 논의

5월 26~27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방한 (북핵 문제, 한중정상회담 일정 등 논의)

7월 3~4일: 한중정상회담

한중FTA 협상 일정

2012년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

3월 1~2일: 서울,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3월 22~23일: 4월 5일 베이징,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

5월 2일: 베이징,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5월 14일: 베이징, 제1차 협상 개최

7월 3~5일: 제주, 제2차 협상 개최

8월 22~24일: 웨이하이, 제3차 협상 개최

10월 30일~11월 1일: 경주, 제4차 협상 개최

2013년

4월 26~28일: 하얼빈, 제5차 협상 개최

7월 2~4일: 부산, 제6차 협상 개최

9월 3~5일: 웨이팡, 제7차 협상 개최

11월 18~22일: 인천, 제8차 협상 개최

2014년

1월 6~10일: 시안, 제9차 협상 개최

3월 17~21일: 일산, 제10차 협상 개최

5월 26~30일: 쓰촨성, 제11차 협상 개최

부록 2

조사개요

아산연례조사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아산-GMF공동 국제관계 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2년 6월 15~21일
실사기관: TNS Korea

아산데일리폴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보고서 하단의 각주 참고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ASAN
REPORT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 사이

발행일 2014년 7월
지은이 김지윤, 강충구, 이의철, 칼 프리드호프(Karl Friedhoff)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110-062)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057-0 93300 비매품